

한국어의 음운체계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자음의 조음위치
 - 국어의 자음은 조음위치에 따라 크게 양순음, 치조음, 경구개음, 연구개음, 후음으로 나눔.
 - 양순음
 - 두 입술을 맞대거나 근접시켜 발음하는 소리
 - 자음 중에서 가장 앞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모국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습득하는 소리
 - ㅂ, ㅃ, ㅍ / ㅁ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치조음

- 혀 끝을 치조에 닿게 하거나 가까이 해서 발음하는 소리
- 언어 보편적으로 치조음에 속하는 자음이 가장 많음 .
- ㄷ , ㅌ , ㅌ / ㄴ , ㄴ / ㄴ / ㄴ

- 경구개음

-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대거나 근접시켜 발음하는 소리
- ㅈ , ㅊ , ㅊ
- 엄밀히 경구개 보다는 앞에서 조음되나 전통적으로 경구개음으로 분류함 .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연구개음

-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 대거나 가까이 하여 발음하는 소리

- ㄱ, ㄲ, ㅋ / ㅇ

- 후음

- 성대 사이인 성문을 이용하여 발음하는 소리 (성문음)

- ㅎ

- 엄밀히 경구개 보다는 앞에서 조음되나 전통적으로 경구개음으로 분류함 .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자음의 조음방법

- 국어의 자음은 조음방법에 따라 크게 파열음, 마찰음, 파찰음, 비음, 유음으로 나눔.

- 파열음

- 막음 - 지속 - 개방

- ㅂ, ㅃ, ㅍ / ㄷ, ㄸ, ㅌ / ㄱ, ㄲ, ㅋ

- 평음, 경음, 유기음 (격음)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마찰음
 - 조음체가 조음점에 완전히 닿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되는 소리
 - 공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음 (지속성)
- ㅅ, ㅆ / ㅎ
- 평음, 경음 / 유기음 (격음)
 - ‘ㅎ’을 평음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.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♣ ‘ㅎ’은 평음인가, 유기음인가?

1. 평음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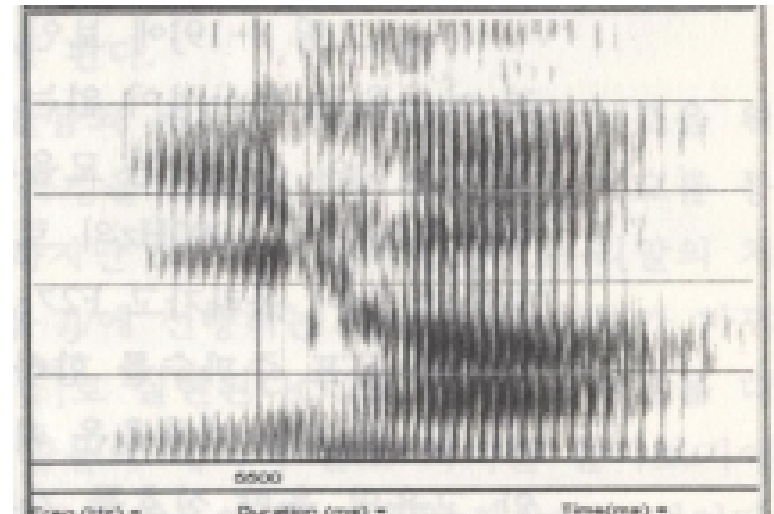
- 다른 유기음들 (ㄱ, ㄷ, ㅍ, ㅌ) 보다 유기음적인 특징이 매우 떨어짐.
- 유성음 사이에 놓일 땐 자연스럽게 유성음화 됨.

2. 유기음설

- ‘ㅎ’이 ‘ㄱ, ㄷ, ㅍ, ㅌ’를 만나면 ‘ㄱ, ㄷ, ㅍ, ㅌ’로 바뀜
- 음성적으로 유기성이 약하지만 음운론적으로 유기음처럼 행동함.

3. 분류불가성

[iɦa]

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파찰음
 - 공기를 폐쇄시켰다가 개방하되 한번에 공기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조금만 열어서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여 발음하는 소리
 - 폐쇄 - 지속 + 마찰 (**파**열 + 마**찰**)
 - ㅈ , ㅉ , ㅊ
 - 평음 , 경음 , 유기음 (격음)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비음
 - 구강 내 어딘가는 막혀 있고 코 안으로 가는 통로가 열려 있어서 공기가 코 안으로 흐르면서 발음하는 소리
 - □ , ㄴ , / ㅇ
 - 양순 , 치조 / 연구개
 - ‘ㅇ’은 음절 종성에서만 나타나는 제약이 있음 .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유음

(1)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만 공기가 방해를 받으면서 혀를 굴려서 내는 소리

(2) 공기가 방해를 적게 받으면서 물 흐르듯 나오는 소리

(3) 혀의 측면으로만 공기가 흐르거나, 혀끝이 잇몸에 잠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

- 발음할 때 공기의 방해를 적게 받아 다른 자음에 비해 자음적인 속성을 적게 가지고 있어 정의하기 매우 어려움 .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- 유음에 속하는 자음은 음성적 특징에 따라 설측음과 탄설음으로 구분됨 .
 - 설측음 - 조음체가 조음점을 막고 있어서 공기가 혀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으로 흐르면서 나오는 소리
 - 탄설음 - 조음체를 조음점에 살짝 대었다가 떼면서 발음하는 소리
- ㄹ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조음위치 조음방법			양순음	치조음	경구개음	연구개음	성문음
장 애 음	파 열 음	평음	ㅂ	ㄷ		ㄱ	
		격음	ㅃ	ㄸ		ㅋ	
		경음	ㅍ	ㅌ		ㆁ	
	마 찰 음	평음		ㄴ			
		격음					ㅇ
		경음		ㄷ			
	파 찰 음	평음			ㅈ		
		격음			ㅊ		
		경음			ㅉ		
공 면	비음		ㅁ	ㄴ		ㅇ	

1. 한국어의 자음체계

Q1. 보기에 제시된 자음들 중에서 아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보세요 .

[보기] ㅍ , ㄴ , ㅅ , ㄱ , ㅎ , ㄹ , ㅇ , ㅈ , ㄷ , ㅂ , ㅃ ,

- (1) 공기가 코 안으로 흐르는 음소
- (2) 입 안에서 폐쇄과정을 거치지 않는 음소
- (3) 후두 긴장이 높고 유기성이 약한 음소

Q2.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자음을 찾아보세요 .

- (1) ‘ ㅂ ’과 조음위치가 같되 유기성이 더 큰 음소
- (2) ‘ ㅅ ’과 조음방법이 같지만 조음 위치가 다른 음소
- (3) ‘ ㄷ ’과 조음위치가 같으면서 코 안으로 공기가 흐르는 음소
- (4)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유기성이 매우 큰 음소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단모음과 이중모음
 -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 소리
 -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함 .
 - 단모음 (monothong)- 하나의 음소로 이루어져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음 .
 - 이중모음 (diphthong)- 둘 이상의 음소로 이루어져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Q3. 보기에 제시된 모음들을 직접 발음해 보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보세요 .

[보기] ㅏ, ㅑ, ㅓ, ㅕ, ㅗ, ㅛ, ㅜ, ㅠ, 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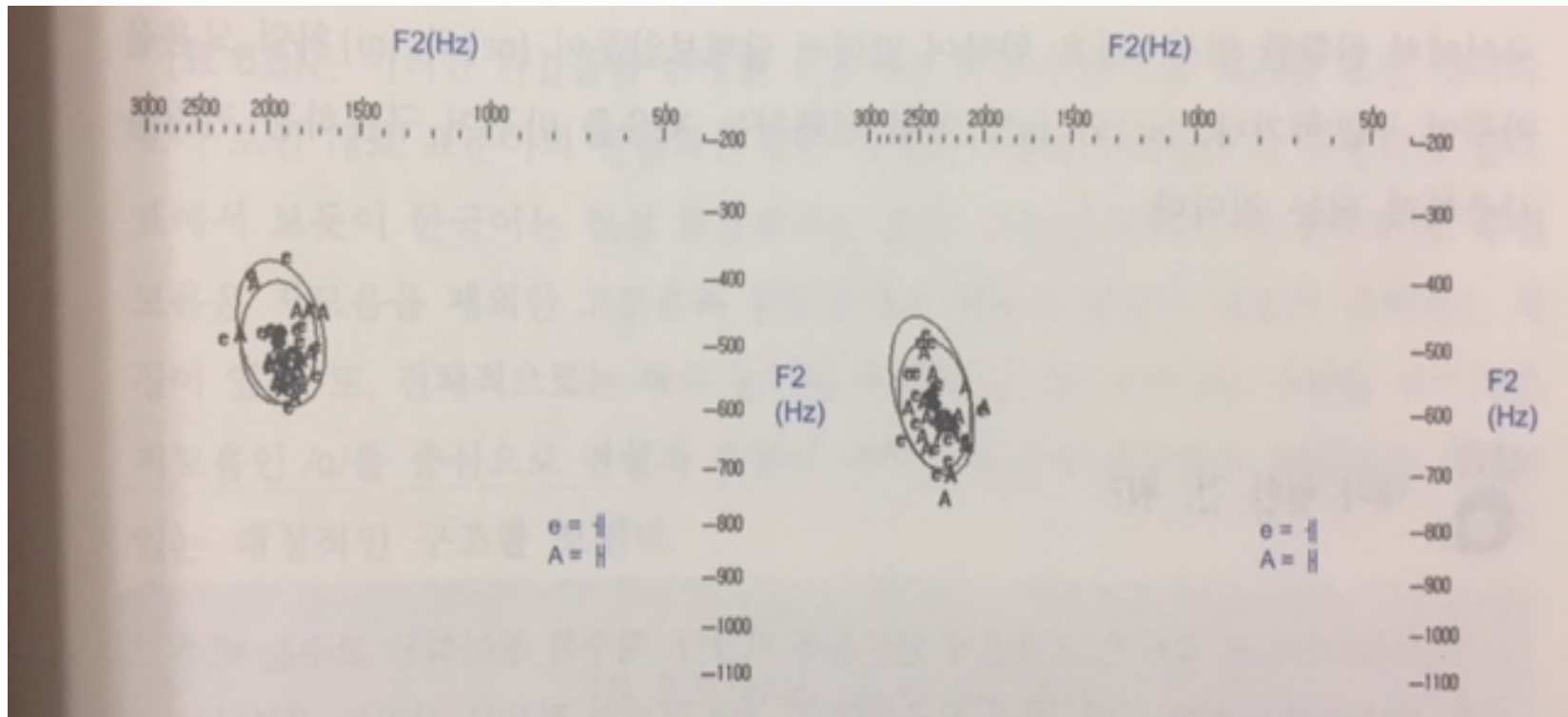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단모음 체계
 - 현대 국어의 단모음 목록은 지역, 연령이라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
 - 표준 발음법에서는 10 개의 단모음을 인정함 .

표준 발음	원칙	ㅏ , ㅑ , ㅓ , ㅕ , ㅗ , ㅛ , ㅜ , ㅠ , ㅡ , ㅣ (10 모음)
	허용	ㅏ , ㅑ , ㅓ , ㅕ , ㅗ , ㅜ , ㅡ , ㅣ (8 모음)
현실 발음		ㅏ , ㅑ (E), ㅓ , ㅕ , ㅜ , ㅡ , ㅣ (7 모음)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한국어 단모음 ‘ㅐ’와 ‘ㅓ’의 포먼트 (남자(좌), 여자(우))

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혀의 전후 위치에 의한 분류
 -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크게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눔 .
 - 전설 모음 -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임
 - 후설 모음 -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임 .

구분	예
전설 모음	ㅣ , ㅓ , ㅕ , ㅗ , ㅛ
후설 모음	ㅡ , ㅛ , ㅜ , ㅠ , ㅡ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혀의 높낮이에 의한 분류
 - 혀의 높낮이에 따라 크게 고모음, 중모음, 저모음으로 나눔.
 - 고모음 - 혀의 최고점이 가장 위쪽에 놓임.
 - 중모음 - 혀의 최고점이 고모음보다 낮은 위치에 놓임.
 - 저모음 - 혀의 최고점이 가장 아래쪽에 놓임.
-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어짐 (개구도) 과 관련이 있음.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구분	개구도 관점	예
고모음	폐모음 (입이 가장 적게 벌어짐)	ㅣ , ㅓ , ㅡ , ㅜ
중모음	반개모음 (입이 중간 정도로 벌어짐)	ㅕ , ㅖ , ㅗ , ㅛ
저모음	개모음 (입이 가장 많이 벌어짐)	ㅘ , ㅙ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입술 모양에 의한 분류
 - 입술 모양에 따라 크게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눔 .
 - 원순 모음 -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 .
 - 평순 모음 -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.

구분	예
원순 모음	ㅜ, ㅡ, ㅠ, ㅝ
평순 모음	ㅏ, ㅑ, ㅓ, ㅣ, ㅗ, ㅛ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	전설모음		후설모음	
	평순 모음	원순 모음	평순 모음	원순 모음
고모음	ㅣ (i)	ㅍㅑ (ü)	ㅡ (ɨ)	ㅓ (u)
중모음	ㅕ (e)	ㅑ (ö)	ㅗ (ʌ)	ㅛ (o)
저모음	ㅗ (ɛ)		ㅓ (a)	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Q4.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모음들을 찾아 보세요 .

- (1) 전설 평순 모음
- (2) 원순 고모음
- (3) 후설 원순 모음

Q5.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모음이 무엇인지 찾아 보세요 .

- (1) ‘ㅡ’를 저모음으로 바꾼 모음
- (2) ‘ㅏ’를 원순 모음으로 바꾼 모음
- (3) ‘ㅓ’를 고모음으로 바꾸고 여기에 원순성을 더한 모음
- (4) ‘ㅟ’에 대해 혀의 높낮이와 입술 모양을 모두 바꾼 모음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이중모음 체계
 - 이중 모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단모음과 구분됨 .
 - 단모음은 음소가 1 개지만 이중 모음은 2 개의 음소로 이루어짐 .
 -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지만 이중모음은 변함 .
 - 일반적으로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룸 .
 - 국어에서는 반모음 ‘y’ 와 ‘w’ 과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룸 .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모든 반모음은 고모음보다 혀의 높낮이를 더 높여서 발음함 .

	y	w
공통점	혀의 높낮이가 고모음보다 높음	
차이점	전설 평순 반모음	후설 원순 반모음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이중모음의 목록
 - 이중 모음의 목록은 단모음의 숫자에 따라 달라짐 .

표준 발음	원칙 (10 모음)	ㅏ , ㅑ , ㅓ , ㅕ , ㅗ , ㅛ , ㅜ , ㅠ , ㅡ , ㅚ , ㅜ , ㅡ (11 개)
	허용 (8 모음)	ㅏ , ㅑ , ㅓ , ㅕ , ㅗ , ㅛ , ㅜ , ㅠ , ㅡ , ㅚ , ㅜ , ㅡ (12 개)
현실 발음 (7 모음)		ㅏ , ㅑ (yE) , ㅓ , ㅕ , ㅗ , ㅛ (wE) , ㅜ , ㅠ , ㅡ , ㅚ (10 개)

- 8 모음 체계에서는 ‘ㅚ’는 기존 이중모음 ‘ㅜㅔ’로 바뀌기 때문에 이중모음이 ‘ㅜㅔ (wi)’ 하나만 늘어남 .
- 현실화 된 7 모음에서는 ‘ㅑ’와 ‘ㅕ’ , ‘ㅛ’와 ‘ㅜ’와 구별되지 않은 결과임 .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이중모음의 분류
 - 이중모음은 반모음을 기준 삼아 분류함 .

y – 계 이중 모음	ㅏ (ya), ㅑ (yʌ), ㅗ (yo), ㅜ (yu), ㅓ (yɛ), ㅕ (ye), ㅡ (iy)
w – 계 이중 모음	ㅘ (wa), ㅙ (wʌ), ㅚ (wɛ), ㅜㅔ (we)

-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순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.

상향 이중모음 (반모음 + 단모음)	ㅏ (ya), ㅑ (yʌ), ㅗ (yo), ㅜ (yu), ㅓ (yɛ), ㅕ (ye) ㅘ (wa), ㅙ (wʌ), ㅚ (wɛ), ㅜㅔ (we)
하향 이중모음 (단모음 + 반모음)	ㅡ (iy)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- 대부분 반모음이 단모음을 선행하는 상향 이중모음이지만 ‘-’만 하향 이중모음으로 분류됨 .
 - ‘-’는 이중 모음체계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현실 발음에서 온전히 발음되지 못하고 다른 단모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음 .

♣ ‘-’의 표준 발음 규정

☞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-’는 [ɪ]로 발음한다 .
ex) 널리리 , 띄어쓰기 , 희망

☞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i]로 , 조사 ‘의’는 [ɛ]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.
ex) 강의 [강의 / 강이], 우리의 [우리의 / 우리에]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♣ ‘ㅡ’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석 방법

1. $i + y$

- 하향 이중모음으로 분류하는 경우 현대 국어에서 유일하게 반모음으로 끝남 .

2. $u + i$

- 반모음 ‘ㅡ (u)’ 와 단모음 ‘ㅣ’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이중모음이 상향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음 .

3. $i + i$

- 다른 이중 모음과 달리 단모음 2 개로 이루어짐

2. 한국어의 모음체계

Q6. 다음 [보기] 의 단어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.

[보기] 민주주의의 의의

- (1)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.
- (2) 위 단어들의 현실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.
- (3) 이를 통해 이중모음 ‘-이’의 발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.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운소 체계

- 운소는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, 세기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줌 .
-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의 세기 차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음 .
- 소리의 길이로 실현되는 운소에는 장단이 있음 .
- 소리의 높낮이로 실현되는 운소에는 고저 악센트와 억양이 있음 .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장단

-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은 차이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함 .
ex) 말 :(言)- 말 (馬), 눈 :(雪)- 눈 (眼), 밤 :(栗)- 밤 (夜)
-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현대 국어의 유일한 운소임 .
 - 경기도 , 강원도 , 충청도 , 전라도 등 서부권에 위치한 방언에서 장단이 운소로 작용함 .
 - 그 외 다른 지역은 경상 방언처럼 고저 악센트를 운소로 지니거나 제주도 방언과 같이 운소를 전혀 지니지 않음 .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원칙적으로 국어의 장음은 단어의 첫머리에만 오는 제약이 있고 합성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인정함 .
ex) 눈보라 [눈 : 보라]- 첫눈 [천눈] / 반신반의 [반 : 신 바 : 니]
- 한 단어의 장단은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함 .
 - 장음화는 대체로 단모음의 반모음화나 축약 등으로 음절 수가 줄어듦 때 잘 나타남 .
ex) 보아 [보아] → 봐 [봐 :]
 - 단음화는 장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피동• 사동 접미사나 어미가 올 때 나타남 .
ex) 밟다 [밟 : 따] – 밟아 [밟바] – 밟히다 [밟피다]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하지만 현재 장단은 운소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는 현실임 .
 - 단어의 장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 .
 -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장단이 구분되지 않음 .
- 장단에 의한 최소 대립쌍의 수가 많지 않아 장단 자체에 단어 변별력의 기능이 높지 않음 .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고저 악센트

- 고저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운소임 .

- 고조 (H), 저조 (L), 상승조 (L+H), 하강조 (H+L)

- 고저는 중세 국어 시기부터 운소로서 기능했고 현대 국어에는 경상 방언에 존재하고 있음 .

중세 국어	밤 (R, 상성 , 栗)- 밤 (H, 거성 , 夜)
경남 방언	말 (H, 馬)- 말 (L, 言)
경북 방언	배 (H, 梨)- 배 (L, 腹)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고저는 그 특성에 따라 성조와 고저 악센트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별 없이 성조라고 부르고 있음 .
- 성조와 고저 악센트는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성조는 음절 단위에 고저 악센트는 단어 단위에 실현된다는 점이 다름 .
- 성조는 모든 음절 단위에서 고저가 자유롭게 올 수 있지만 고저 악센트는 한 단어 내에서 고조 (H) 의 숫자 제한과 같은 제약이 있음 .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경부 북부 방언의 예

분절음	고저	의미
자란다	LHH	(어떤 일을) 잘한다
자란다	HHL	(길이 재는) 자라고 한다
자란다	HLL	(잠을) 자라고 한다
자란다	RHL	저 아이라고 한다
자란다	FLL	(실을) 자으라고 한다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- 억양
 - 억양은 단어보다 큰 단위 (구나 문장 등) 에 얹히는 소리의 높낮이를 가리킴 .
 - 단어의 의미 변별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운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.
 - 하지만 억양은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님 .
 - 억양 중에서 문미 억양이 제일 중요하고 문미 억양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상승조 , 하강조 , 평탄조로 나눌 수 있음 .
ex) 지금 집으로 돌아가

3. 한국어의 운소체계

Q7. 다음에 묶인 음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.

(1) ㄷ , ㅌ , ㅍ , ㅊ , ㅍ

(2) ㅁ , ㄴ , ㅇ , ㄹ

(3) ㅈ , ㅊ , ㅊ .

(4) ㅊ , ㅊ

(5) ㅡ , ㅏ , ㅓ , ㅣ

(6) ㅏ , ㅓ , ㅕ , ㅗ , ㅛ , ㅝ

Q8. 다음 물음에 생각해 보자 .

(1) ‘ ㅛ ’와 ‘ ㅝ ’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‘ ㅛ ’와 ‘ ㅝ ’를 정확히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.

(2) ‘ 네가 ’는 ‘ 니가 ’ 라고 하지만 ‘ 내가 ’는 ‘ 니가 ’라고 하지 않는다 .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.